



◇ 한글 깨침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삼광사 부설 한글학교는 방학도 없다. 사진은 방학을 거부한 어르신들이 받아쓰기를 하는 모습.

## 여름도 잊은 삼광사 한글학교 어르신학생들

# “한글 읽고 쓰니 너무 행복해요”



◇ 삼광사에서 편찬한 한글교과서.

“자, 받아주세요. 고~향. 진~달~래. 모르는 글자는 비워주세요.”  
누가 학생이고 선생님이진 분간하기 어려운 교실에서 받아쓰기가 한창이다. 학생들은 50~80대까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희끗희끗한 머리를 숙인 채 굵은 주름이 잡힌 손으로 한획 한획 힘겹게 쓴다. 한 할머니는 연필을 입에 물고 고민하다 슬그머니 연필자를 엮는다. 하지만 옆자리의 할머니는 글쓰기에 죽 빠져 할머니의 걸논질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

학생의 연령이나 교실의 풍경이 어느 학교와는 판이하게 다른 부산 삼광사 부설 삼광한글학교(교장 덕수 스님)의 보충수업 시간. 한여름의 폭염을 피해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지만 삼광한글학교의 학생들은 지금 방학을 거부(?)하고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방학은 최고의 즐거움인데 왜 이 학교의 학생들은 방학을 마다하는가?

“요즘 한글 배우는 것 이외에는 재미있는 것이 없어. 하루 하루가 아까운데 무슨 방학이야. 죽기 전에 한자라도 더 배우자...” 은빛 머리 카락들 빛스럽게 넘긴 존재 좋은 신학명(71·3년) 학생이 그 답을 대신해 준다. 옆자리에서 글을 쓰고 있던 학생들도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며 입을 모은다. 이날 수업은 2학년 보충수업. 하지만 학년 구별 없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도 동참했다.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이후에도 7~8년을 계속 다니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삼광한글학교는 ‘한글 깨침’의 전당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의



◇ 여름수업회에서 한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

한글 깨침은 단순히 문맹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한 것처럼 답답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글을 모를 때는 어디를 가든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속만 태웠지요. 그런데 글을 알게 되니 가게부도 적고,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몰라서 못 온 사람이 불쌍할 정도예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는 다 못해요. 글도 가르쳐 주시, 기도도 할 수 있지, 좋은 친구들도 만나지,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었소. 바로 극락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억력이 저하되어 단

### 매년 250여명 만학의 열정 자체 교재로 3년간 교육

### 불교설화·스님일대기 등 통해 한글도 깨우치고 불교도 공부

순한 남편도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글쓰는 재미에 빠져 있는 이들 학생들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수업이 반복되는 복습조차도 즐겁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 전일 교사로 있는 손은주(27) 선생님은 이를 증명하듯 말한다. “입시생보다도 더 열심히들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 눈물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울기도 했답니다.”

삼광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3시간씩 걸리는 경남 함안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을 다녔던 학생, 남편 한글 배우는 열에서 목욕하 관세음보살만 쓰면서 3년을 함께 해 주던 아내, 이 가운데 앞으로 부병중인 60대 후반의 할머니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한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된 그 할머니는 말기 암의 고통 속에서도 수업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는 날까지는 배우다 가겠다면 그 할머니는, 끝내 졸업을 하지 못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어 나오지 말라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부둥켜 안기도 했다. 아마도 지금쯤 그 할머니는 못 배운 한 다 풀고往生극락했을 것이다.

삼광사가 삼광한글학교 문을 연 것은 92년 4월 3일. 우리 글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다. 입학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첫해 1년 과정으로 200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삼광한글학교는 이듬해 2년 과정으로, 94년에는 3년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학교를 시작한 삼광사에서조차 놀랄 만큼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것이다. 9회 입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까지 매년 평균 250여명의 학생들이 입학해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현재는 지혜, 보람, 자비, 으뜸, 정진 등 5개 반이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다. 수업은 4명의 정교사와 9명의 보조 교사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60~70대의 할머니가 가장 많다. 현재 최고령은 81세의 김인희 할머니.

삼광한글학교는 불교계에서 보기 드문 교육 시설이다. 특히 자체 교과서 편찬과 3년 간의 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 못지 않을 정도이다. 교재의 내용은 한글 배우기에 머물지 않고 불교소양 교육에도 한몫을 한다. 불교 설화, 한국 역사, 시, 시조, 스님 일대기 등의 내용을 한글을 깨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살아보내기 때문이다.

삼광한글학교 학생들은 최근 실시한 여름 수련회에서 그 동안 배운 실력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귀여운 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등으로 시작되는 편지들은 하나같이 받침이 틀리고 빼빼물처럼 산에 대한 대경경의 기쁨은 넘쳐 나왔다.

버스 표지판이나 간판을 읽지 못해 길을 헤매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던 설움, 공공서에 갈 때 일부러 봉대를 갖고 가서 글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던 일 등을 한 장의 편지에 실어 날려보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심봉사가 된 때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한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은몸의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배우다 갑니다.”

조영래 보살은 한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우울증이 심했다. 글을 모르고 산 몇십 년 동안, 내색도 못하고 주눅들며 살아온 세월이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연히 등산을 다녀온 남편이 우리글을 배워보라며 삼광사 한글학교를 권했다.

“남편은 사범학교를 다녔으니 내가 못 배운 게 더욱 마음에 맺혀 병이 되었지요. 처음엔 부

### 2학년 조영래(61세) 보살



### “못배운 한 풀었어요”

그러워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입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빨리 한글배움의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됩니다. 이런 배움의 장을 열어준 교장선생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조영래 보살의 남편은 복습을 알뜰하게 챙겨주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복습도 도와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늘 자신들을 위해 사오던 연필, 공책을 내 것으로 살 때 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학년을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렵고 속도도 많아지지만 공부하는 재미에 전주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 또 딸라진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꼭 나누어 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한글학교에 오게 되길 바란다는 조영래 보살의 얘기 속에는,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잘난 논객의 그 어떤 정교한 논리보다도 더 설득력이 컸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자재물 BIO항모요양침대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 는 자연입니다

- ▶ 전자파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 리빙스톤은 가격, 품질, A/S 에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포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자재물 원석치신 BIO돌침대

- 봄(가을)에 불을 안 넣으면 방 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 돌침대에서 원석외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목단 902

101 침구보조

침대의 **이름**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리빙스톤** (옥스톤)

Living Stone Bed

☎ (02)424-9427/2203-7821

**돌침대의 효능...**

- ◆ 몸속 깊숙히 원석외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초장파 와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원천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월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복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 돌침대는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액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 수 있습니다.